

동대문구 도시 현황 진단 및 분석

동대문과 청량리역이 만든
현재진행형의 오고 감의 도시, 동대문구

최종 보고서

2022. 11.

두번째 상상

제출문

동대문문화재단 귀하

동대문구 도시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연구 책임 오 은 영 (두 번째 상상 대표)

목 차

I. 동대문구 도시 현황 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1.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 이해하기	1
2. 동대문구 도시 현황 분석 방법론	4
II. 동대문구 도시 현황 진단 및 분석	5
1. 동대문구의 현재	8
2. 시대에 따른 동대문구의 형성과 변화	11
2.1. 일제강점기 이전	11
2.2. 일제강점기 및 근대화	12
2.3. 해방 이후	13
2.4. 1960년대	13
2.5. 1970년대	15
2.6. 1980년대	16
2.7. 1990년대	16
2.8. 2000년대	16
3. 도시 구조 및 행정구역 변천	18
4. 지역의 주요 이슈	20
4.1. 청량리역과 동대문구 도시 정체성의 형성	20
4.2. 청계천 판자촌	23
4.3. 도시 주거지역의 형성과 변화	25
4.4. 대학의 이전과 대학가의 형성	26
4.5. 영화산업의 시발점, 동대문	27
4.6. 서울 대표 집창촌 청량리 588	28
4.7. 동대문구의 음식문화	30
4.8. 동대문구의 유무형 문화유산	32
4.9. 전국 유통의 중심, 동대문구의 시장	33
5. 동대문구 도시역사의 결정적 이슈	35
5.1. 경계이자 통로로서의 동대문과 동대문구 지역의 형성	35
5.2. 전근대를 밀어내고 근대 도시로 재탄생시킨 철도	35
5.3. 철도문화로 인한 도시 정체성의 변화: 도시 경계의 확장	35
5.4. 청량리역을 관통하는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 판자촌, 집창촌	37
5.5. 잠재적인 대학문화의 역동성	38
5.6. 재개발과 민자역사시대의 현재진행형	39
6. 결론	41
7.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도시의 장소성 읽기를 위한 제언	42

I 동대문구 도시 현황 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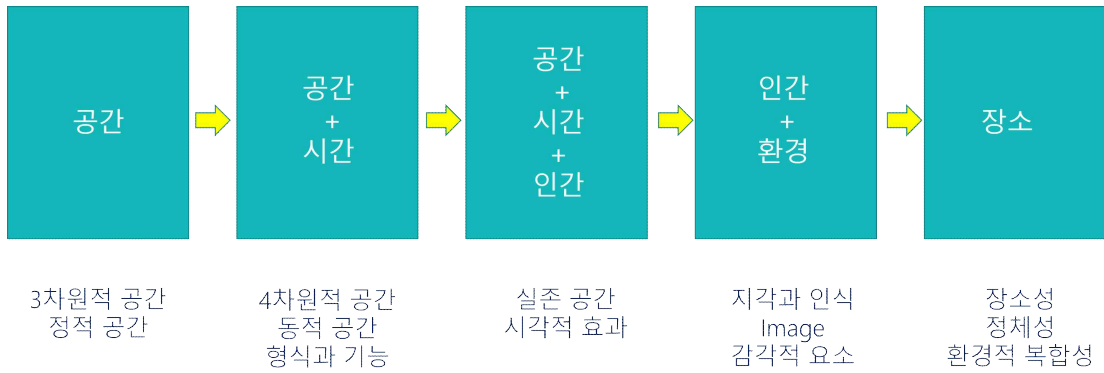
1.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 이해하기

■ 지역 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도시 현황에 대한 다각적 이해

- 21세기는 지역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에 주목하며,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의 문화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분권과 자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지역에서의 문화적 특성과 잠재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동대문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렇게 지역의 고유성에 바탕을 둔 문화정책의 수립은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것으로,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과거에는 도시의 문화적 현황에 대한 횡적 분석을 위해 일반 자원, 문화자원 등을 주요한 분석의 지표로 활용해 왔음.
- 그러나 도시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현황 분석을 넘어서서 도시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 형성되어온 과정에 대한 종적(역사적) 분석을 결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도시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 공간 형성의 흐름과 해당 지역에서의 주요 이슈를 고려한 도시발전의 결정적 국면을 확인하여야 함. 이러한 결정적 국면을 통해 도시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동대문구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이자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임.

■ 도시와 공간, 장소의 의미

- ‘도시공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공간임. 도시는 장소의 기억과 흔적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으며 은유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때문에 그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함.
- 현대 도시는 기술의 발달과 교감하면서, 기존의 공간(space)과 활동(activity) 중심에서 시간(time)과 장소, 기억, 그것을 추적하는 형태의 중심으로 복합, 분화, 전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간 이용자들의 형태와 소통은 기존의 물리적 도시환경 개념에서 확장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상황임. 현대인들에게 ‘도시’는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는 일상적인 장소의 의미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



- 장소는 공간에 역사, 의미, 가치, 경험, 기억 등의 개념을 더한 것이며, 따라서 도시를 단순한 공간이 아닌 장소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의 물리적 조건(a physical condition), 행태적 조건(an act condition), 의미적 조건(a meaning condition)을 인식한다는 것임. 도시의 정체성은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며, 이를 성찰하고 사유하는 것을 통해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

■ 도시의 장소성이란?

-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공간이며, 사회문화적인 의미에서 도시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이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을 통해 의미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축적의 시간임. 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장소는 의미와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됨. 도시는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와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이들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가는 사회문화적 활동이 축적된 시간을 통해 그 장소만의 고유한 특성과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것임.
-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소로서 이해될 수 있음. 이를 달리 말하면 도시의 장소성(place identity 혹은 placenes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소성은 특정 장소가 거주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임. 공간의 정체성으로서의 장소성은 그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타인과 함께 그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 장소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을 사유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임. 장소성 맥락에서의 도시 정체성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면서 도시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소는 대개 두 가지 성격을 지니는데, 1. 활동이나 사물이 발생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을 띠는 환경이며, 2. 그 속에서 인간의 활동 및 사회적 실천이 전개되고 이에 따라 그 지점의 의미가 부여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비물질적인 현상을 매개하는 장이기도 함. 궁극적으로 장소는 인간의 의식이 물질적 주위 존재와 맺는 총체적인 관계이며, 이것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차원에서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되는 경우 이를 장소성(sense of place, placeness)으로 설명함

■ 장소성에 근거를 둔 도시문화정책 구현

- 도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를 통해 도시의 유무형 자원과 거시적인 환경

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도시의 형성과 발전 혹은 쇠퇴의 과정을 도시의 맥락(context)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도시의 역사와 마음(정서)을 동시에 읽으려는 노력이기도 함. 일반적으로 정책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연속성 안에서 움직이고, 행위하고, 교류하는 존재임. 따라서 도시의 문화정책이 이러한 장소성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그 장소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일이 될 것임.

2. 동대문구 도시 현황 분석 방법론

■ 공간 및 시간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권역 및 지역 일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도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도시 행정권역 및 생활권역을 포함하는 지역 일대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 : 개화기부터 현재
 -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전후(1960~2000년대 10년 단위), 현재까지로 설정함

■ 동대문구 현황 검토

- 동대문구의 개요
 - 동대문구는 서울 중심과 주변 도시를 잇는 동부 서울의 거점이면서 도성 사대문의 하나인 동대문을 경계로 한 동쪽에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
 - 전농동의 배봉산과 회기동 북쪽 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로 동쪽으로는 중랑천, 서쪽으로는 정릉천, 남쪽으로는 청계천 등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음
- 동대문구의 문화적 여건
 - 동대문구는 약령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오래된 전통시장과 선농단, 흥릉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통 및 지역축제 등을 보유
 - 동대문구 내에는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가 있고, 인근에도 고려대, 성신여대, 한양대 등 우수한 대학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의 문화적 활용 가능성이 존재
 - 중랑천, 청계천, 정릉천, 성북천, 배봉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은 자연 친화적인 지역문화 구축의 잠재력
- 동대문구 행정구역 변천

동대문구 행정구역 변천사

한성부 성저십리 인창방 (漢城府 仁昌坊, 1394)	→	경성부인창 면 (京城府 仁 昌 面 , 1911)	→	고양군송인 면 (高陽郡 崇仁面, 1914)	→	경성부 동대 문구 (東大門區, 1936, 1943)	→	서울특별자유 시 동대문구 (東大門區, 1946)	→	서울특별 시 동대문 구 (東大門 區, 1949)
---	---	--	---	-------------------------------------	---	--	---	-------------------------------------	---	--

■ 동대문구의 역사와 주요 이슈를 통한 장소성 읽기

- 최근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는 '역사'와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며, 맥락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사회 현상 혹은 정책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봄. 이러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 역사이며, 여기에는 선행하는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결정적 국면이 존재

- 따라서 역사와 맥락의 틀 안에서 결정적 국면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핵심이 될 수 있음
- 도시 정체성 형성의 선행조건
 -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선행조건은 정치와 제도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로 구성될 수 있음. 여기에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시기인 근현대가 포함되며, 이 시기의 국가 전체의 주요한 변화가 선행조건으로 작동하게 됨
- 지역의 주요 사건 및 이슈
 - 동대문구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담은 근현대사 가운데에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며, 해당 사건들과 지역에서 주목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게 됨
- 도시 형성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국면
 - 앞서 살펴본 변화의 맥락과 역사를 바탕으로 도시 형성의 결정적 국면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동대문구의 지역적 특성을 인문,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현황 및 자원분석 결과 연계

- 공간, 사람, 생태, 산업, 경제, 공동체 등 도시를 이루는 항목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분석을 시행함
- 동대문구 도시 문화 환경과 문화자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결정적 국면 파악에 연계 활용

개화기 - 일제강점기 - 해방 - 한국전쟁 - 전후(1960~2000년대 10년 단위)

선행조건			주요 사건 및 이슈	도시 구조 및 행정구역 변천	결정적 이슈
정치제도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동대문구의 역사적 사건	동대문구의 형성 및 발전	동대문구 역사와 맥락에 따른 결정적 이슈

동대문구 일반 현황 및 문화자원 분석

역사와 결정적 국면을 통한 동대문구 도시 현황 진단 및 분석

II 동대문구 도시 현황 진단 및 분석

선행조건			주요 사건	도시 구조 변화	
정치/제도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p>대한제국 수립 을사늑약 체결 및 한일병합 조약 체결 외세 및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p>	<p>조선산업을 일본제국산업에 종속 산미증산계획 일본인 자본유치에 의한 공업화 군수산업 확충</p>	<p>고종황제 국장 토지조사사업(식민농촌 정책) 시구개정사업 경원선 완공</p>	<p>서대문-청량리간 전차궤도 설치 광장주식회사 설립 동대문-광화문 사이 성곽 멸실 광장시장 대화재 흥인지문 밖과 흥원원 등지에서 만세운동</p>	<p>신시가지 계획령 전차로 복선화작업 위해 흥인지문 좌우성곽 철거 후 흥인지문 북쪽 성벽 철거 후 도로 개통 경성운동장 건설(흥원원터 일부)</p>
해방	<p>미군정 실시 남북 분단 통치체제 건국준비위원회 및 와 인민위원회의 활동과 이후 이어지는 좌우 대립 신탁통치 찬반 운동 제한의회 설치 및 친일파 숙청 시도 반민특위와 친일파 숙청의 실패</p>	<p>미군정의 식량배급에 의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 일본인 자본가를 대체한 한국인 자본가 부상 공업생산 위축 및 물가폭등 국민경제 성장 기틀 마련</p>	<p>서울 도시재건계획 피난민 귀국동포 등 인구집중 국립중앙의료원 준공 동대문구 인구 급증</p>	<p>청계천 복개 및 판자촌 철거 무허가 시장 16개 허가조치</p>	<p>동대문시장->대지 3,600평 지상에 연건평 5,700평의 단일 건물로 건설</p>
한국전쟁	<p>한국전쟁 발발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 실시</p>	<p>근대적 산업시설 및 경제시설의 파괴 경인공업지대 시설 피해로 경제 기반 파괴</p>	<p>휴전 후 포로송환 및 반공포로 석방</p>	<p>청량리역 파괴 후 신축역사 준공</p>	
전후	<p>해외 경제원조 투입 국방비 및 산업재건 비용 투입으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p>	<p>해외 경제원조 투입 국방비 및 산업재건 비용 투입으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p>	<p>동대문시장 대화재 대형화재 청계천 판자촌, 점포 소실 평화시장 화재 동대문시장 대화재</p>	<p>청계천 복개 공사 시작</p>	
1960	<p>4.19 혁명 5.16 쿠데타의 발생 박정희 정권 출범</p>	<p>남일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 및 중화학공업 육성정책</p>	<p>영화산업의 발달 전차운행 폐지 평화시장 설립 창신동에 공원 마련 통일 상가 동대문상가 APT 설립</p>	<p>광장시장 대화재</p>	<p>서울운동장 주변 일대 54개 우범지대로 설정 청계천변 위험지대 설정 불량지구 재개발을 통한 국민주택 대량건설계획 청계천 복개후 간선도로 건설 청계고가도로 건설</p>
1970	<p>7.4남북공동성명 등 남북대화의 지속으로 시적인 긴장 완화</p>	<p>남일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 및 중화학공업 육성정책</p>	<p>동대문운동장 일대 재개발 동대문종합시장 개관 동대문 종합상가 고속버스터미널 운행</p>	<p>전태일 분신 동대문종합시장, 동화시장 설립 도심학교의 외곽이전 결정 동대문 고속버스터미널 완전 폐쇄 제일평화, 남평화시장 설립</p>	<p>시민아파트 건설사업 동대문일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신설 무허가 건물철거 계획 청계천7가 재개발 구역 지정 쌍림동 일대 공원화 동대문 터미널 앞 지하도 준공</p>

선행조건			주요 사건	도시 구조 변화	
정치/제도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1980	10.26 이후 서울의 봄, 광주항쟁, 전두환 정권 설립, 87년 개헌 이후 제6공화국 수립	지속적인 경제규모 확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	다세대 다가구 규제 완화, 아시안 게임 개최, 서울올림픽 개최	동대문시장 화재, 동대문운동장역 지하철 2호선, 4호선 운행, 흥인시장, 덕운시장 설립, 동대문 지하상가 확장, 흥인상가APT가 청평화상가로 개칭	청계천7가구역(신당동) 재개발 사업 완료
1990	95년 민선1기,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계양구, 부평구 분구	IMF 경제위기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작업, 흥인지문 명칭 복원	동대문운동장 5호선 운영,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수립, 동대문운동장 균열 발생	동대문지역 21곳 재개발 본격화
2000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집권			동대문관광특구 지정, 청량리 588 폐쇄, 민자역사 개통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고시,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 3차 뉴타운 후보지 검토,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동대문운동장 철거 완료

1. 동대문구의 현재

■ 동대문 없는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의 동부에 있는 자치구로 1943년 구제 실시와 함께 설치된 구로, 동쪽으로 중랑천을 경계로 중랑구, 광진구와 접하며, 서쪽으로 신설동 로터리를 경계로 종로구와 접하고 있음. 남쪽으로는 성동구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성북구와 접하는데, 인구 약 34만여 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임. 동대문구의 면적은 14.25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35%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주거지역은 12.48km², 준주거지역은 0.56km²이며, 상업지역은 0.83km²이고 녹지 지역은 0.38km² 임.
- 종로구와의 경계에 있는 많은 지명이 동대문과 연관되어 있어 이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혼선이 있음. 동대문,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시장 등 동대문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주요 거점들이 모두 동대문구가 아닌 종로구에 속해 있어 동대문구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함.
- 지리적으로는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울시립대로 이어지는 왕산로가 구의 중앙에 있으며 인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구 맘모스백화점)과 커다란 재래시장 등이 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그 하부에 신설동 로터리, 장안동, 경희대/외대 앞 등의 소중심지들이 있으며, 청량리 지역은 구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의 중심이며 신촌, 영등포, 강남 지역과 함께 서울의 4대 부도심으로 동대문구만이 아니라 서울의 흥망성쇠와 함께 변화해 온 지역임.

[그림 1] 청량리 대표 백화점 대왕코너의 광고(출처: 네이버 블로그)

地下鐵과 連結된 百貨店이 탄생했습니다

勿論 長安의 話題가 되고 있지요.
하루 수십萬 人波가 내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곳에 繁榮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生活人의 지혜이지요.



<임대 안내> 문의 ☎0201 - 4

1. 地下鐵연결 店舖(連鎖店)
2. 地下百貨店 1部
3. 1층및 2층 1部
4. 각종 事務室(3층以上)

추석맞이 사은품부 대매출
9. 16~9. 30까지

株式會社  대왕코너

- 동대문구는 청량리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까지 연결하는 관문이자 통로라고 할 수 있음. 교통이 편리하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와 물류의 집하장으로서 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경동시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음.
- 동대문구의 지형은 전농동의 배봉산과 회기동 북쪽 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100m 이하의 저지대를 이루고 있음. 동부로는 중랑구와 경계를 이루는 중랑천이 남서쪽으로 흐르고, 서부에는 정릉천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용두동 부근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청계천으로 유입됨. 청계천은 남동쪽으로 흘러 성동구 사근동에서 중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됨. 동쪽으로는 중랑천, 서쪽으로는 정릉천, 남쪽으로는 청계천 등 하천으로 둘러싸인 동대문구는 거의 전 지역이 해발고도 50m 이하이고, 하천 범람원에 해당하는 충적평지가 넓게 발달하여 시가지 발달과 교통중심지로서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동대문구 형성의 동력이 된 청량리역

- 명실상부하게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지명은 청량리임. 청량리의 지명은 청량사(淸涼寺)라는 사찰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하는데,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동부 인창방(仁昌坊) 청량리계(淸涼里契)에 속하는 성외 지역이었음. 이후 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5부가 5서로 바뀔 때 동서 인창방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의 한 동인 청량리가 됨.
- 청량리와 이 주변 지역은 예로부터 도성 안 사람들이 도성 밖을 나갈 때 잠시 머물거나 거쳐가는 장소였음. 청량리를 결정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명성황후의 능인 흥릉이 청량리에 있었기 때문임. 명성황후가 1895년 시해당한 후 1897년 청량리에 흥릉이 조성되면서 이곳에 명성황후의 부군인 고종황제와 그 아들인 순종 황제의 행차가 잦게 됨. 두 황제의 능행을 편리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광무 3년(1899) 도성과 청량리를 잇는 전차가 건설되었고, 그 궤도를 따라 이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 일대는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 더불어 중앙선·경춘선 등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건설되면서 서울과 한반도의 동부지역을 잇는 교통거점으로 드러남.
- 1899년 운행을 시작한 전차는 서대문-청량리간 노선을 시작으로 성곽 안 도심지역에서 교외 지역까지 이동범위를 넓히게 됨. 단선에서 복선으로, 또 신설과 연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차는 일제 시기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었음. 그러나 1945년 해방으로 서울 인구의 급증, 도시화와 함께 서울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자동차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전차는 1968년 운행을 중지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지하철과 기차가 청량리를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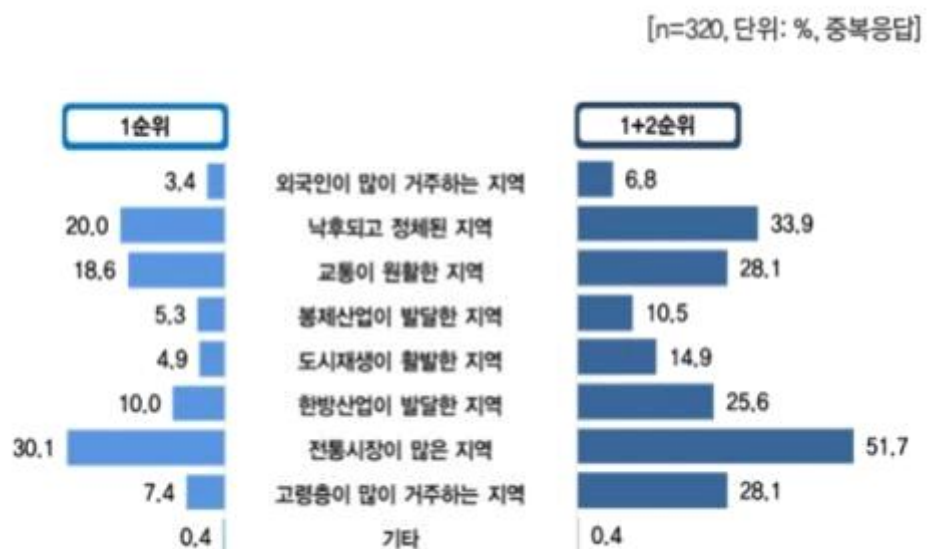
[그림 2] 1899년 처음 개통돼 서울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운행됐던 전차(출처: 경향신문)



■ 동대문구의 지역 이미지

- 동대문을 대표하는 지역의 이미지는 전통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후되고 정체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뒤를 잇고 있음. 다만 청량리역의 존재에서 기인한 바와 같이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3순위로 꼽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동대문구의 지역 이미지(출처: 동대문구청연구단 연구보고서)



2. 시대에 따른 동대문구의 형성과 변화

2.1. 일제강점기 이전

■ 한성에서 전국으로 나가는 관문

- 동대문은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 하나인 흥인문에서 유래하며, 서울 도성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조선시대 한성부의 관할은 도성 안과 도성 내부 지역과 도성으로부터 사방 10리에 이르는 지역을 일컫는 성저십리(城低十里) 지역이었음. 동대문 밖 성저십리 지역은 흥인지문으로부터 십리가 떨어진 지역으로 지금의 청량리 일대까지로, 사대문 밖이기는 했지만, 한성부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 1897년경 동대문 입구 풍경(출처: 동대문 지역문화 인포그래픽 개발 연구)



- 조선시대에 동대문을 통해 강원도 일대로 향할 수 있었고, 소위 삼남지방(三南地方)으로 가는 사람 중에도 이 문을 나서서 한강 독을 따라 살곶이 다리를 건너거나, 북쪽 함경도로 갈 때도 동소문(東小門)을 택하지 않고 동대문에서 안암동·종암동의 길을 이용해 가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던 길이었음.
-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동·서·남·북·중 5부(部)로 나뉘고, 이는 다시 52개 방(坊)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이 가운데 동부의 12개 방은 성내의 10개 방과 성 밖의 2개 방이었음. 성 밖의 2개 방은 송신방(崇信坊), 인창방(仁昌坊)으로 오늘날의 동대문구는 물론 성북, 도봉, 성동구의 일부 지역까지 그 안에 속해 있었음. 이렇게 지역적으로 함께 속해 있던 행정구역들은 이후 개편을 통해 나뉘거나 합쳐지는 등 지속해서 변화를 겪게 됨.
- 고종 31년 갑오개혁(1894년)으로 많은 동리(洞里)가 한 계(契)에 속하게 되었는데 동서(東署) 송신방 동문외계(東門外契)에 신설동, 신리, 우산, 각리 등이 속했으며, 제기리, 용두리, 전농리, 답십리, 청량리, 회묘동, 휘경원, 이문동 등이 포함됨.

2.2. 일제강점기 및 근대화

■ 개화의 상징 전차역, 철도 그리고 동대문구의 성장

- 동대문구에 직접적인 개화의 물결이 들어온 것은 1897년 명성황후의 국장과 능묘(陵墓)인 흥릉이 조성되고 고·순종 양황제의 능행(陵行)이 잦아 1899년 5월 18일에 최초의 전차가 청량리까지 운행하게 되면서부터임. 1890년대 후반에 한반도 최초 근대적인 가로수가 동대문 밖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심어졌음.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는 경성부로 바뀌면서 경기도 경성부 인창면 청량리로 불리다가,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가 되었으며, 같은 해에,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역이 영업을 시작하였음.

[그림 5] 전차의 모습과 내부 사진(출처: 동대문구의 오늘, 과거 그리고 미래와 만나다)



- 경원선은 1910년 10월 15일 첫 삼을 뜬 후 우여곡절 끝에 1914년 8월 완공되었으며, 함경선이 완공된 것은 1928년 9월이었음. 나아가 일제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략하면서 함경선과 도문선 등의 만주 동북 지방 간선을 중국 지린(吉林)에서 회령에 이르는 길회선과 잇고 이들 철도 선상에 위치한 청진, 나진 등의 동북 3항을 일본의 동해 쪽 항구와 연결시켜 단기간에 물자를 수송하는 이른바 ‘북선(北鮮) 루트’를 개발함. 그리고 1936년에 실측조사에 들어가 1942년 2월 전 구간이 개통된 중앙선의 출발점도 청량리역이었음. 1938년 5월 1일부터 청량리역은 ‘동경성역’으로 불리게 되었고, 같은 날짜를 기점으로 ‘남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꾼 영등포역과 함께 ‘대경성’의 ‘양날개’를 담당하게 됨.
- 현재 미주아파트 자리에 경성제국대학 예과건물이 준공되어 수업을 시작한 것이 1924년 5월 10일이며, 한 해 뒤인 1925년 11월에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근대화된 공장이었던 종연방적 주식회사 경성공장이 신설동에 들어섰고 1928년 9월에는 신설동에 경성 경마장이 설립되어 낙성식을 거행했음.
- 한편, 1936년 일제 하에서 경성부의 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경성부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에 편입되었던 동대문구 지역이 다시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동대문구에 속한 정(町)은 창신·송인·신설·안암·종암·돈암·용두·제기·청량·회기·이문·휘경·전농·답십리 등 14개 정(町)이었으며 이듬해 11월 성북동을 편입하여 15개 정(町)으로 되었음. 1936년 이후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역의 물류의 중심지로서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되었고, 이름 또한 ‘동경성역’으로 개칭되면서 당시 서울의 관문으로서 역할이 강조되었음. 더욱이 1939년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명실상부 청량리역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교육·시설이 들어선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됨.

2.3. 해방 이후

■ 급증하는 인구와 판자촌

- 1946년 9월 28일 경성부가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되고 그해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인 정(町)·통(通)·정목(丁目) 등을 동(洞)·로(路)·가(街)로 개정하였으며, 1949년 8월 13일 성북구가 신설됨에 따라 동대문구의 관할구역이 축소되었음. 1955년 4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동제(洞制)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21개 행정동이 생겨났으며, 1956년 서울시 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동대문구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의 상봉리, 중화리, 묵동리, 신내리, 망우리가 편입되어 크게 확충됨.
- 또한 해방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낙산 일대, 신설동과 용두동 일대, 그리고 중랑천변에 판자촌이 형성되고 인구가 밀집하게 됨. 또한 서울에 이주민이 급증하게 된 것은 일본의 토지정책 때문임. 지방에서 땅을 잃은 사람이 자연스레 일을 찾아 서울로 온 것은 필연적이었음. 이주자금이 충분하지 못했던 정착민은 자연스레 토막촌이라 불리는 슬럼을 이루게 되었고, 이는 나중에 집창촌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해방 이후 1949년 서울시의 구역이 확장되면서 고양군의 일부 구역과 동대문구의 일부 구역을 합하여 성북구가 신설되었는데, 이때 동대문구는 18개 동회에 인구는 27,131가구 69,366명이었음. 이때 토막촌에 거주하던 인구들이 정확히 거주인구로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동대문구의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청계천 판자촌은 한국전쟁 직후, 즉 1950년대 초에 피란민과 월남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작됐음.
- 1956년 서울시 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동대문구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의 상봉리, 중화리, 묵동리, 신내리, 망우리가 편입되어 크게 확충됨. 1959년 11월 16일 신축역사를 준공하고 새로 철도를 재개함. 경춘선을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농산물과 임산물이 몰려들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시장이 형성됨.
- 청계천의 복개가 시작된 것은 1958년으로 1978년까지 진행된 이 복개공사와 청계고가도로의 건설로 인해 청계천 일대의 미나리밭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

2.4. 1960년대

■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과 물산, 급증하는 인구

- 광복 후의 인구집중 현상은 서울 시내 전역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동대문구 관내의 인구집중은 초기에 급속히 진행되었음. 1960년대 말에는 이미 신설·용두·제기·전농·청량리동 등에는 거의 공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뻗뻗이 들어서게 되었고, 197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는 답십리·휘경·회기·이문, 전농동 등도 비슷하게 전개됨.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이 들어서는 속도가 너무 빨라 구획정리 등의 계획적인 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함.

-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동대문구 지역은 서울 시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이나 교육, 경제 활동이 대단히 편리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량 인구의 집적·정주가 가능했음. 청량리역 근처 경동 시장은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 아무도 없을 정도로 유명했으며, 경동시장에서 청량리시장, 그리고 그 남쪽의 수산시장까지 그 규모나 거래량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등의 면에서 한국 최고 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함.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전국에서 사람과 물산이 모두 모여드는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됨. 교통의 중심지로서 동대문의 이미지는 이때 성립된 것임.
- 1967년 청계고가도로 건설에 앞서 동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의 판자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 거대한 건물군이 들어섰는데, 이것이 바로 세운상가였으며, 1976년에는 지금은 동대문구에 속하지 않지만,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월남민 밀집지대에 대한 재개발이 단행됨.

[그림 6] 1960년대 동대문 시장(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전차는 해방 이후에도 기차, 버스와 함께 오랜 기간 운행이 유지되었음. 해외에서 돌아온 재외동포들의 귀환,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한 북에서 내려온 월남동포의 증가로 인해 전차의 수요가 높았음. 하지만 여전히 전차의 운행 대수는 고정적이어서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버스와 경쟁에서 밀리며 점점 쇠락하게 됨. 1968년에는 전차운행이 완전히 중지되었는데, 폐선 논의가 발표된 이후 1970년대에 완전히 철거됨.
- 전차 폐지 계획과 함께 1962년 전차를 대체할 지하철 개발이 착수되었고, 서울역-시청-종로-동대문-제기동-청량리로 이어지는 노선을 개발하여, 서울의 유동인구의 교통과 수송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970년대에 들어 ‘수도권 고속전철화’ 정책이 발표되며, 청량리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도심철도화 사업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현재까지 유지 중임.

2.5. 1970년대

■ 동대문구에서 제외된 동대문과 인구 밀집의 그늘

-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의 구역변경이 있었는데 동대문구의 창신동·송인동 및 신설동 일부가 종로구에, 면목동·용두동·답십리동의 각 일부가 성동구에, 보문동과 신설동의 각 일부가 성북구에 편입되었으며 대신 성동구의 중곡동·능동·군자동의 각 일부가 동대문구에 편입되었고(이로써 장안동이 신설됨), 성북구의 종암동·안암동·석관동의 각 일부가 동대문구에 편입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의 행정동은 36개 동에서 32개 동으로 축소되었음.
- 이때 동대문구의 상징적인 장소인 동대문이 종로구에 편입되어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또한 성동구의 중곡동, 능동, 군자동 일부와 성북구의 종암동, 안암동, 석관동 등 일부가 동대문구로 편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의 행정구역은 매우 축소됨.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밀집과 유동인구의 증가는 일제강점기 이래 존재해 온 사창가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요인이 됨. 당시 청량리역은 여관 형태의 업소로 주변부 시장상인과 손님, 휴가나온 군인과 미군을 대상으로 인구가 점차 늘고 있었음. 70년대에 들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전업형 성매매 인구가 급증하게 됨.
- 1970년대 서울은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도시였음. 청계천 복개가 완료된 1977년은 한국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해이기도 함.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빈민들이 있었고, 청계천은 그들의 터전 중 하나였음. 가족과 성공을 위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마다하지 않았던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은 개발 시대 속 화려한 서울의 그늘에 자리 잡고 있었음.

[그림 7] 1970년 마장동, 답십리 부근 청계천 판자촌 모습(출처: 서울신문)



- 1960년대에 시작된 청계천 복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청계천을 따라 늘어서 있던 판자촌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1970년대까지 마장동, 답십리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이들은 최종적으로 청계천 복개가 완료되면서 모두 철거가 되었고,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됨.

2.6. 1980년대

■ 청량리 588의 성업과 동대문구의 성장

- 동대문구의 관할구역은 1986년에 43개 동에 233,837가구, 950,853명으로 서울시 17개 구 중 인구수 1위를 차지함. 1988년 1월 1일에 인구 76만 명이 넘는 구는 구획이 재조정됐는데 이때 동대문구 관할에 있던 면목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동·신내동은 신설된 중랑구의 관할이 되었으며 동대문구는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회기동·청량리동·휘경동·이문동 등 10개 법정동과 14개 행정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청량리 588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실행되진 않음. 심지어 통금이 해제되면서 숙박까지 하는 손님에 대한 호객행위가 치열해졌고, 88올림픽 전에 미관을 정리한다며 기존의 여관형태의 업소를 네덜란드의 사창가의 인테리어(속칭 유리방)로 바뀌게 되었음. 소방도로 용도로 도로를 넓혔지만,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 멀리서까지 온 손님이 사용하게 되고, 새롭게 미관을 고친 업소가 성행하면서 소위 황금기를 맞이하게 됨.
- 이후에 동대문구 행정구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7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중랑천 동부 일대를 동대문구에서 분리하여 중랑구를 신설한 것임. 이때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등이 중랑구에 편입되면서 동대문구 영역은 26개 동으로 축소됨.

2.7. 1990년대

■ 도심 재개발

- 청량리 588일대는 1990년대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생성됨. 또한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업소관계자의 반대로 무산됨.

2.8. 2000년대

■ 청량리 588의 폐쇄와 민자역사의 개통

- 2000년대 성매매특별법이 발표되면서 588일부 지역이 철거되었고, 거센 저항이 있었으나 점차 손님이 줄면서 점차 업소가 줄어들게 됨. 2003년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으로 발표되고 2007년부터 철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2013년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의 상세한 논의가 고시되며, 결국 2014년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이제는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음.
- 오랜 시간을 끌어온 청량리 민자역사가 2005년 착공하여 2010년 개통함. 롯데백화점 개업을 시작으로 영화관, 은행, 할인점, 상가 등의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민자역사 인근 지역으로 54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과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조성되어 이 일대가 서울 동북지역

의 새로운 상권의 중심지로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2008년 8월 11일 1차 동 통폐합으로 22개 동으로 축소되었고 2009년 5월 4일 2차 동 통폐합으로 14개 동으로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림 8] 청량리역 민자역사 전경(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3. 도시 구조 및 행정구역 변천

■ 근대 이전에 이미 형성된 도시 구조와 자연발생적인 성장

- 동대문구는 조선시대 한성이 직접 관리하던 지역으로 행정구역과 도시 구조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는 없음. 동대문의 존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와 한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청량리역에 전차가 설치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발생적인 도시 구조의 형성을 경험하게 됨.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판자촌과 같은 무허가 시설과 주민들의 존재로 인해 무계획적인 도시의 변화를 겪게 됨.
- 이후 동대문구의 도시 구조의 변경은 독자적이라기보다 1970~1980년대에 진행되었던 서울의 도시계획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서울시는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도심기능에 대한 외곽 이전 정책을 실행하였고, 이에 따라 동대문 일대에 밀집하고 있던 학교 및 공공부지들이 이전하고 이곳에 새로운 상가건물들이 출현하게 됨.
- 이로 인해 기존의 동대문시장 영역이 청계로를 따라 빠르게 확장되었는데 이때 형성된 동대문 의류 도매상권은 전부터 존재했던 전통 재래시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의 인구증가와 섬유 수출산업의 호황으로 더욱 발전하게 됨. 그러나 여기에는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값싸게 착취한 노동현실이 숨겨져 있었고, 이에 항거하는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친 것은 물론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긋게 됨.
- 동대문과 청계천 주변에는 현대식 상가건물인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고 이에 따라 동대문 일대는 생업과 주거가 근접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시장 조직을 갖추게 됨. 동대문시장과 운동장을 오가는 엄청난 유동인구는 동대문 상권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동대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상업지역의 발전에 따른 도시의 변화

- 해방과 전쟁 이후에는 피난민이 집중되어 인구가 급증하고, 전후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광장시장의 주변으로 양키시장, 자유시장이 들어서 오갈 곳 없던 피난민들의 생업의 터전이 되었음. 이를 배경으로 생성된 평화시장은 동대문시장 형성의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했음. 전차가 멈추고, 공공부지였던 동대문 일대의 학교 및 공공시설이 이전하자 동대문의 의류 전문 상가(시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음. 80년대 도매 전문시장, 90년대 소매 전문 쇼핑몰이 등장해 동대문시장의 성공신화를 이끌고, 특히 야간 시간대에 개장하는 전략으로 남대문 시장을 앞질러 국내 최대 의류시장, 동대문패션타운이 되었음.
- 동대문시장은 도매상권의 발전과 더불어 소매상권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됨. 특히 의류 관련 산업의 지속적이면서 산업집적화의 효과에 힘입어 전국 최대의 도매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 동대문패션타운 인근이 관광, 패션 문화, 녹지 문화 등으로 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복원된 청계천 등은 동대문구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으나 동대문 일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구도심 쇠퇴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 동대문구는 2003 전농·답십리, 2006년 이문·휘경 지역, 2009년 청량리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전농, 답십리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과 분쟁 등으로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청량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지이지만, 집창촌, 노점상, 노후 재래시장 등이 밀집해 있어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곳임.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3년 전농동·답십리동 일대 812,867.2km² 면적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음.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8년 1월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음.

■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 장안평 중고시장 일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제기동 고대 앞 마을, 제기동 감초마을, 홍릉 일대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제기동 도시 한옥은 2017년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며, 2019년 9월 19일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음.
- 제기동 도시한옥지역은 근대적 도시계획 수법이 도입되어 일정한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구조이지만, 남북방향 블록으로 전통적인 한옥 필지 구성방식이 결합되어 있음. 도시한옥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원기동과 굴도리 등의 한식목구조 구법’, ‘타일과 함석 등의 재료’ 등 1960년대의 특징이 잘 남아 있음. 서울약령시,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등이 인접해 있으며, 도시 한옥과 전통시장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임.

[표 2] 동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구분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제기동 감초마을	제기동 고대앞마을	골목길재생사업	
				휘경마을	제기로11길
대상면적	420,892㎡	49,800㎡	54,865㎡	14,902㎡	7,051㎡
추진기간	2017.~2022.	2019.~2021.	2020.~2022.	2020.~2022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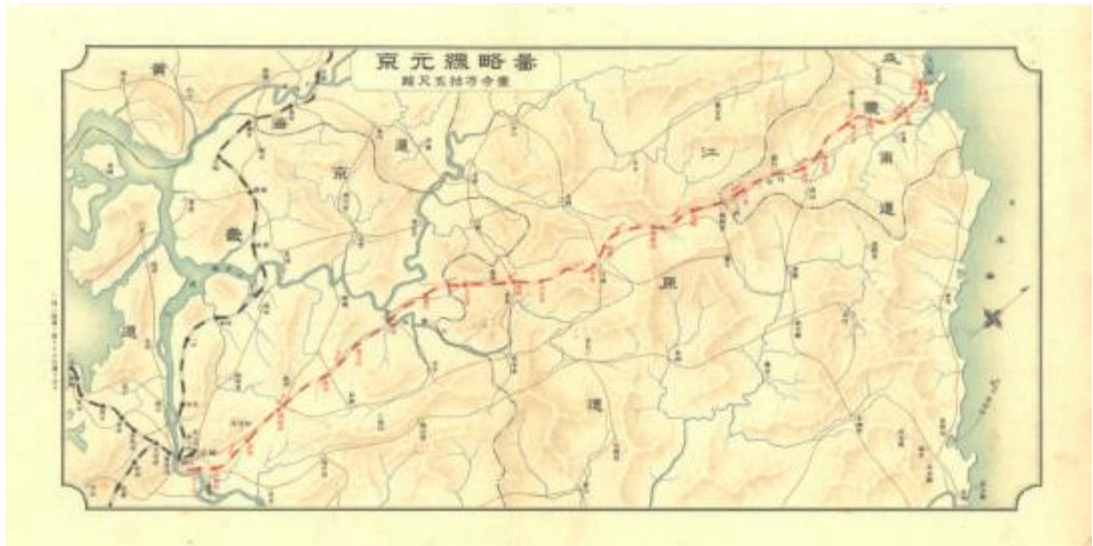
4. 지역의 주요 이슈

4.1. 청량리역과 동대문구 도시 정체성의 형성

■ 청량리역 탄생, 수탈과 이주의 역사

- 청량리역은 최초에 서울 시내 최초의 전차역으로 건설되었는데, 1898년 9월 경희궁에서 기공식을, 1899년 5월 4일 개통식을 함. 서울 시내에 전차를 처음 가설하게 된 계기는 흥릉 때문이었는데, 고종은 일제에 시해당한 명성황후를 1897년 흥릉에 안장하고, 자주 행차하였음. 이를 좀 더 편리하게 하도록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를 연결하는 8.1km 구간에 단선 전차 궤도를 부설하였음.
- 전차의 설치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는데, 이에 따라 동대문구 지역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음. 전차가 가설되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1911년에는 용산에서 원산까지 연결하는 223km 노선의 경원선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때 청량리 철도 역사도 영업을 시작하였음. 경원선이 완전히 개통된 것은 1914년이며, 주요 고객은 상인들이었음. 함경도와 춘천 및 철원 등지에서 유입되는 화물이 많았고 대다수 이용객이 청량리역을 주로 이용하였음.

[그림 9] 경원선 약도(출처: 철도박물관 도록)



- 청량리역은 결과적으로 수탈과 이주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가 필요해진 것임. 청량리, 왕십리역은 간도로 이어져 있어(경원선), 생활고로 인한 간도 이주민의 사용이 많았음. 화물량은 잡곡이 많았지만, 목재와 신탄(薪炭)의 양도 많았음. 1927년 청량리를 기점으로 양평-충주-안동-대구에 이르는 대규모 노선이 개발되는데, 이는 충주 일대의 석탄, 영월과 평창의 철광, 죽령 일대의 삼림을 노린 개발이라 할 수 있음. 조선총독부의 평가에 따르면 청량리역은 “경북/충북/강원 및 경기 오지(輿地) 연선(沿線) 일대의 풍부한 광산, 농산 및 임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최근 증대하는 경부선 수송을 조절함과 아울러 수해 기타 임시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철도”라고 할 수 있음.
- 청량리역은 1936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중앙선의 서울 지역 종착점이었고, 사설철도로 지어진 경

춘선과도 연결되어 있었음. 경춘선은 1939년 7월 완성되었는데 제기동에 있던 성동역에서 시작하여 청량리를 거쳐 춘천까지 연결하는 93.5km² 구간임. 서울 동쪽 지역에서 청량리역이 인적 물적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철도가 부설되면서부터인데, 청량리역에서는 1940년에 조선대박람회(1940)가 열리기도 하였음. 청량리역은 1936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중앙선의 서울 지역 종착점이었고, 사설철도였던 경춘선과도 연결되어 있었음.

■ 청량리역의 도시화와 도시의 발전

- 1910년에 시공을 시작해서, 1914년에 완공이 된 경원선으로 인해 청량리역은 철도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됨. 지금처럼 자동차가 보급되지 않았던 전 근대시기, 철도역 인근은 전국 각지의 유동 인구가 모이고, 물류가 쌓이는 곳이었음. 그러므로 철도역 인근에 관련 종사자와 상인, 일꾼이 상주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시장경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대한제국이 몰락하고, 왕실이 사라지면서 왕실의 공간이 점점 도시화와 택지화가 이루어지는 변화를 겪게 됨. 당시 서울 중심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탈서울의 모습을 보이며 서울과 외부의 경계에 마주한 동대문에 주거지가 마련되고 여러 사람이 살게 되었음.
- 동대문구 지역에 군수물자 운반을 위한 군인/상인/잡부가 살기 시작하며 대규모의 주거지가 건축됨. 청량리역의 역할이 커지며 '동경성역'으로 개명이 되고, 서울로 들어오는 동쪽 관문으로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짐. 경성농업학교(1918), 경성제국대학예과(1924), 보성전문학교(1934), 경성법학전문학교(1938)와 같은 학교가 이주해오고,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1922), 종연방직공장, 조선고무회사와 같은 산업시설이 들어오며 도시화가 가속화되었으며, 도시화와 함께 '토막촌'과 같은 빈민촌도 생성됨.
- 1945년 해방 이후, 사설철도는 모두 미군정청이 접수하여 국유화되었으며, 1946년 5월 7일 군정청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 법령이 공포되어 완벽하게 철도의 국유화가 진행됨. 한국전쟁 이후 성동역과 청량리역이 전소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인 1959년 11월 16일 신축역사를 준공하고 새로 철도를 재개함. 경춘선을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농산물과 임산물이 몰려들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시장이 형성됨.
- 경원선의 개발도 동대문구 일대, 특히 청량리역의 도시화를 앞당기게 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춘선과 관련되었던 성동역과 청량리역이 모두 파괴되기도 하였음. 서울 수복 이후 성동역과 청량리역이 복구된 후, 한국전쟁 중 강원도 전선에 군인이 투입되고, 전선에서 돌아온 군인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전쟁 이후에는 경원선과 경춘선으로 연결된 지역 상인이 모두 청량리역 인근에서 농산물과 임산물을 거래하게 되었고, 이처럼 사람과 물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청량리역 인근에 시장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동대문구에는 많은 시장이 운영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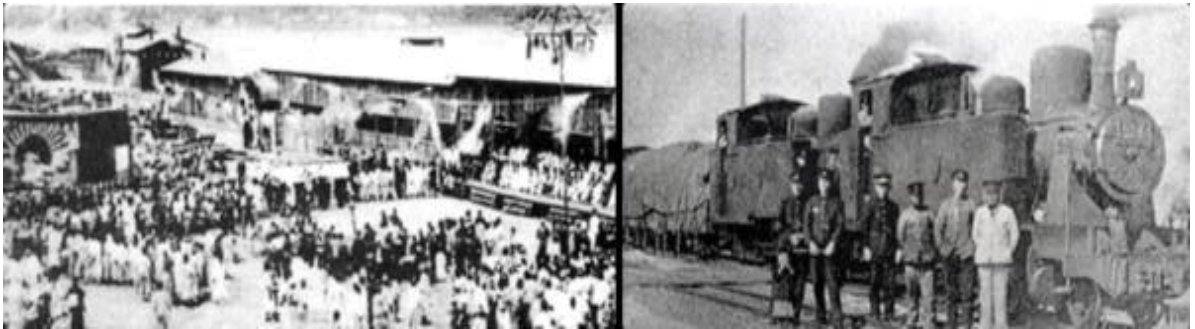
■ 철도로 인한 도시문화의 변화

- 철도로 인해 변화된 인근의 공간과 생활의 변화 등 공간과 역사를 아울러 '철도문화'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철도와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일 수 있지만, 열차와 철도의 발달로 인해 물류와 사람이 오가게 되고, 다양한 사람과 집단의 교접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임.

즉, 철도가 운송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문화 탄생의 매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임.

- 동대문구의 ‘철도문화’는 주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한제국 때 세워진 최초의 노선 중 하나라는 대표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 동안 한국인의 교통·운송을 담당했기 때문임. 이렇게 청량리역의 ‘철도문화’의 발달로 인근에 도시문화가 형성되었음. 철도역은 물류가 오가는 교차지점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시장이 발생하고, 숙박업이 발달하는 등의 다른 공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됨.

[그림 10] 1899년 9월 인천 제물포에서 열린 경인선 개통식과 증기 기관차(출처: 한국철도공사)



- 조선시대에 이미 시장상권의 주요한 지역으로 활약하던 청량리는 고종의 능행차를 위한 ‘전차’를 설치하고 이후, 철도까지 연결되면서 100여 년의 철도문화를 형성하게 됨. 일제강점기에는 개발이 막힌 구역이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생활이 회복되어, 서울 시내 주거의 문제가 생기자 보호를 해제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건축됨.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청량리역 광장은 일종의 청년 문화의 거리가 되었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과 유곽이 형성되어 하나의 문화로 이어지게 되었음.
- 청량리역 인근에 시장이 들어서고, 사람의 왕래가 활발해지자 다양한 문화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음. 특히 기차 시간을 기다리던 상인과 시민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인근에 다양한 영화관이 생겨, 영화 소비문화 구역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아울러 숙박업 또한 발달하게 됨. 하지만 숙박업은 인근 상인과 군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매춘업으로 발전되어, 소위 ‘청량리 588’이라 불리는 성매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기도 하였음.

■ 동대문구의 도시화와 청량리역의 장소성

-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증가는 도시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의 제한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도보나 말을 이용해 작업장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는 것임. 전차와 철도의 발전은 이러한 한계를 확장해 소위 ‘전차교외(streetcar suburbs)’까지 포함하게 됨. 유럽과 미국의 도시가 경험했던 것처럼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의 경계에서 중심부로 통근하는 노동자들이 등장하게 됨. 근대적 교통시설로서 전차와 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발달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꿔놓았는데 확장된 공간까지 교외라는 이름으로 인식과 소비의 범주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임.
- 청량리역은 전차의 종점일 뿐만 아니라 경원선과 중앙선이 출발하는 곳이었던 까닭에 수많은 사

람이 이곳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머나먼 곳으로 떠나기도 했음. 이러한 감각은 기존의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뿌리부터 흔들어놓았고, 철도망이라는 축수는 청량리 주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 한국전쟁 중 성동역과 청량리역이 파괴되었지만, 서울 수복 이후 복구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한국전쟁 중 강원도 전선에서 싸우던 군인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청량리역에 자주 드나들게 됨. 전쟁 이후에는 경원선과 경춘선으로 연결된 지역 상인이 모두 청량리역 인근에서 농산물과 임산물을 거래하게 되었음. 이처럼 사람과 물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청량리역 인근에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그림 11] 해방 이후 전차노선도(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청량리, 일탈과 일상)



- 그뿐만 아니라 청량리 일대는 ‘교외화’ 과정과 함께 도심부의 大路에서 쫓겨난 도시 빈민들과 도심부 진입에 실패한 이농민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음. 이미 1910년대 중반부터 경성 도심에서 조선인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난의 결과로 교외로 이주하는 자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임. 1936년 제1차 구역확장 때 경성부에 편입된 신설동, 용두동, 안암동, 제기동, 청량리, 전농동, 답십리, 중암동, 돈암동, 성북동, 정릉동 지역도 도심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이 모여든 곳으로, 도시의 중심부에서 빛을 발하는 화려한 쇼윈도와 대비하여 중심에서 축출당한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빈민굴이 그곳을 에워싸고 있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빈민굴은 철도를 따라 형성되는 예가 적지 않음.

4.2. 청계천 판자촌

■ 집단이주로 형성된 도시빈민촌

- 일제강점기가 지속되며, 재조일본인이 서울 중심지의 주요 거주지를 차지하면서 식민지 조선인은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만 했음. 지속적으로 증가한 재조일본인 인구나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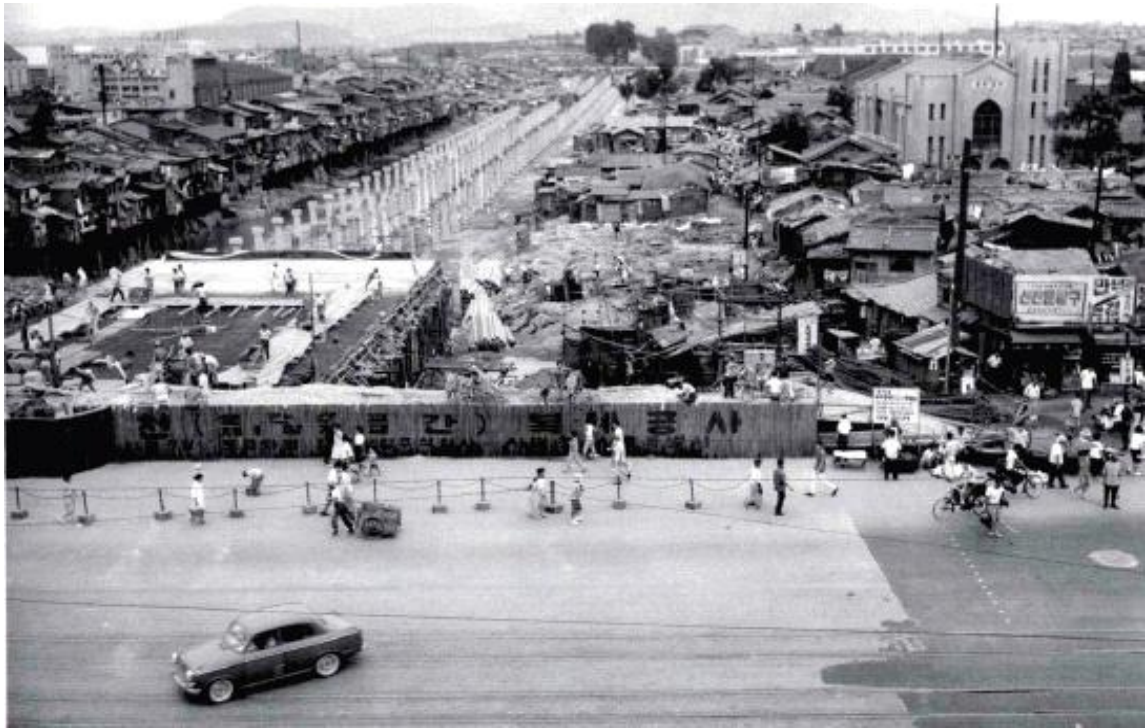
인구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없었기에, 점점 거주지는 외곽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거공간이 부족한 조선인은 점점 서울의 경계 동대문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불러왔음. 이와 같은 집단 이주의 배경에는 전차의 발달이 무관하지 않은데, 기존에는 생활권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제한되었다면,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전차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서울 중심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임.

- 도시의 물리적 복제·확장과 함께 경성부로 편입된 청량리 일대는 도심에서 추방되어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이 종착점으로 삼은 지역이기도 했음. 1938년 현재 경성부 내 토막민의 생업을 보면 일용노동자가 46.3%이고 무직이 43.6%에 달하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서대문 밖과 동대문 밖에 움집을 짓고 살았음. 동대문 근처의 창신동과 충신동, 동대문 밖의 신설동 지역과 신당동 부근에 토막민들이 몰려 살고 있었음.
- 도시빈민의 형성은 도시화 과정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성이 제국주의 일본이 건설한 식민지 도시였다는 것임. 즉, 경성부가 확장될수록 지배자인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의 (반)강제적 계토화와 인종적으로 부과된 배제의 사회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상징적인 예증 하나가 동대문 밖과 서대문 밖에 포진한 토막촌이었음.

■ 판자촌의 형성과 철거

- 해방 당시 서울의 인구는 110만 정도였으나 귀환 동포, 월남 인구의 증가로 폭증을 거듭함.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서울은 더럽고 불결한 곳이었으며, 천변은 불결과 빈곤의 상징이 되었음. 1945년 일제가 소개 도로로 만들어 놓은 공지(空地), 종묘에서 시작하여 청계천을 가로질러 충무로에 이르는 지대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이 되어 버렸음.
-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래 청계천은 서울로 몰려든 농민, 노동자, 빈민들이 몰려 사는 무허가 임시 건물이 가득 들어찬 지저분한 공간이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청계천의 전면적인 복개 구상이 1935년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거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의 교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청계천을 복개하여 도로와 철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바로 실현되지 못했다가 해방 이후 1958년에 전면 복개가 이루어졌고, 고가도로가 형성된 것은 1967년임.

[그림 12] 1965년 동대문 제2청계천 복개공사(출처: 동대문 지역문화 인포그래픽 개발 연구)



4.3. 도시 주거지역의 형성과 변화

■ 근대적 도시주거지의 형성

- 일제강점기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경성부가 팽창하면서 도성 외곽지역인 청량리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주거지 공급이 이루어짐. 청량리 일대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공간이 아닌 서민주거지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고, 1936년 철도부설로 관사주택지가 들어선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본격적인 근대도시주거지의 실험장이 됨. 도심 변두리 공간에서 근대적 교외주택지로 탈바꿈한 후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은 서울의 주요 정책과 도시계획사향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지난 100년 동안의 근대 도시주거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
-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청량리역 철도관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시한옥주거지, 6·25전쟁 이후 공영주택단지인 청량리 부흥주택, 1960년대 말에 서울시에서 공급한 시민아파트가 들어선 청량리 일대 아파트지구 등과 1970년대 후반 민간건설업체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대상지 등 다양한 도시 집합주거지가 형성됨.
- 전쟁으로 인한 재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한 수용시설과 월동용 간이주택, 그리고 후생주택과 복구농민주택, 수복지구 간이주택으로 총 82,658호를 건설함. 후생주택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일반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후생주택은 이 시기에 수많은 공영주택과 함께 건설되어 전쟁에 지친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음.

-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에는 ‘도시 한옥’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도시 한옥’은 대형 필지를 분할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뒤 새로 만들어진 주거지에 집단적으로 건설된 한옥임. 제기동의 도시한옥은 1940년 3월 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형성된 지역의 일부로 격자형 가로와 세로로 정형화된 필지로 구획된 택지가 형성된 후 도시형 한옥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형성됨. 제기동 한옥 골목의 도시한옥은 도시 한옥 건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도시주거지 건설 실험의 대상지

- 청량리 일대는 꾸준히 도시주거지 건설의 실험 대상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계층이 정주해 왔던 공간이 아닌 주택정책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아파트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량리 미주아파트단지까지 건설되어 혼성적 성격을 지님.
- 동대문구는 이처럼 수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무질서한 시가지 확장 역사로 서울 강북 동부에서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와 함께 난개발이 심한 편임. 현재까지도 이러한 난개발로 인한 지역 특성상 대다수의 지역에서 현재 재개발이 진행중으로 성북구 다음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 및 재건축, 뉴타운 개발 구역이 많으며, 이로 인한 도시 구성의 변화도 급격히 촉진되고 있음.

4.4. 대학의 이전과 대학가의 형성

■ 동대문구, 성북구 일대의 대학밀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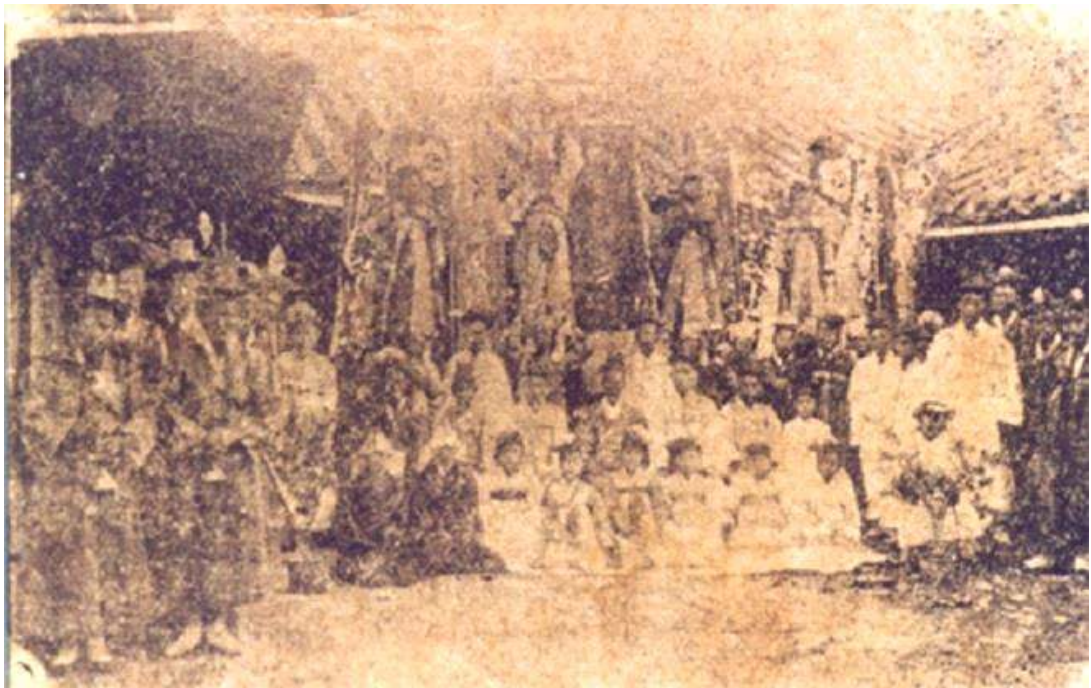
- 동대문구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어 가히 교육특별구라해도 과언이 아님. 경희대학교는 1911년 개교한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으로 1947년 서울 종로에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신흥전문학원을 설립하였으며, 1949년 2년제 신흥초급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음. 1952년 정식 설립 인가를 받고 4년제 신흥대학으로 전환하였으며, 1955년에 종합대학인 신흥대학교로 승격되며, 교사를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이전했고, 1960년대에 신흥대학교였던 교명을 경희대학교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게 됨.
- 서울시립대학교는 1918년 조선총독부의 도지사가 교장의 사무를 맡아 경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했다. 1956년 4년제 대학인 서울농업대학으로, 1974년 서울시 정책에 따라 도시 관련 학과 위주로 개편했고 이름을 서울산업대학으로 바꾸게 됨. 1981년 지금의 교명인 서울시립대학으로 변경되었고 1984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52년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설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음. 1957년 현재의 동대문구 이문동에 교사를 이전하였고 1980년에 종합대학으로 개편하게 됨.
- 그 밖에도 동대문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가까워 하나의 대학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학가 혹은 대학문화하면 떠오르는 신촌과 달리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대학은 뚜렷한 대학문화의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음.

4.5. 영화산업의 시발점, 동대문

■ 극장문화의 보급과 영화산업의 성장

- 고종황제에게 전차 설치를 조언한 콜브란과 보스트위크는 한미 전기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장에서 활동사진을 상영하게 됨. 이때 다양한 영상으로 작품별 차등화된 가격을 받고 상영하였는데 동대문 전기창고에서 구리 10전으로 값싸게 활동사진을 볼 수 있었으며, 전차표를 가져가면 영화표로 쓸 수 있었음. 하루 천 명가량이 오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거래나 홍보 장소로도 쓰였고, 영화 상영과 함께 광대나 요술사가 공연을 하기도 함.

[그림 13] 1907년 창립한 광무대 출연진들의 모습(출처: 매일일보)



- 이곳이 후에 활동사진 및 창극단의 공연을 올렸던 연희전문극장인 ‘광무대’로 발전하게 되는데, 1907년 5월 28일부터 광무대(光武臺)라는 정식 극장 명칭을 내걸고 공연을 시작. 활동사진 위주 공연에서 창가, 탄금, 승무, 유성기 감상, 창극같은 다양한 공연을 함. 단성사의 설립인원도 동대문시장에서 얻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극장을 만들 수 있었음. 광무대가 을지로로 옮겨가면서 일시적으로 활동사진 사업은 종로가 위주가 되고, 청량리 교통위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됨. 그러나 청량리역 인근에 시장이 들어서고, 사람의 왕래가 활발해지자 다양한 문화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특히 기차 시간을 기다리던 상인과 시민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인근에 다양한 영화관이 생겨, 영화 소비문화 구역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도 했음.
- 성바오로병원 옆 청량리 일대에 가장 큰 ‘오스카 극장’, 청량리역 mammoth백화점의 ‘mammoth 극장’, 청량리역 맞은편 ‘동일 극장’, 미주상가 지하 ‘미주극장’ 미주 상가 건너편 ‘제일극장’, 588 길목의 ‘시대 극장’, 대왕코너의 ‘대왕극장’, 답십리 길의 ‘답십극장’ 등이 성업하였음.
- 한국전쟁 이후 청량리역 인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대량의 영화관 문화가 발달하는 것으로 명맥이 이어지게 됨. 60년대 극장은 한국영화 황금기와 맞물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기다리

던 시민/시장의 유동인구를 사로잡는 공간이었다면, 80년대 극장은 당시 해외영화사가 직접 배급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소규모 영화관이 기존에 재개봉이나 마지막으로 필름을 넘겨받는 구조에서, 직접 영화사에게서 필름을 받을 수 있어,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음.

- 1960년대 이후로 수입영화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 1957년 수입영화 쿼터제가 실시되면서 우수영화를 제작할 경우 수입영화 한편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줌. 1961년이 되어 국내영화를 살리기 위한 강제 억제책이 실시되면서, 영화산업의 황금기가 오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의 다툼이 지속되던 시기였음.
- 답십리 영화 촬영소의 정식 명칭은 ‘대한 연합 영화주식회사’로, 홍의선·전옥숙 부부가 사재를 털어 1964년 3월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12번지(현 동대문구 체육관과 동답초등학교 일대)에 지은 촬영소임. 영화촬영의 경우 1960년대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힘입어 답십리 지역에 최신식의 스튜디오를 지어 다수의 영화촬영을 했으나, 한국 영화산업의 쇠퇴와 함께 스튜디오도 쇠락하게 되었음.

4.6. 서울 대표 집창촌 청량리 588

■ 일제강점기 유곽과 빈민촌의 형성

- 과거 집창촌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청량리 588은 그 어원이 전농동 588번지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와, 588번 버스가 지나는 곳이었다는 설이 있음. 과거 미아동, 파주시 용주골 등과 같이 유명했던 서울특별시의 집창촌이며 현재는 재개발 진행중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자리가 옛 청량리 588 자리임. 이곳의 실제 행정구역은 전농동이지만 명칭은 청량리로 알려져 있는데, 588이란 이름의 유래가 불분명한 것처럼, 통상 명칭에 청량리가 붙은 것은 위치가 (지상) 청량리역 바로 옆이기 때문임.
-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게 된 이유는 1906년 이후 일본인 주거지역에 대규모 유곽과 철도역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에 의한 것임. 대부분 교통시설인 기차, 전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인근에는 윤락가가 같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청량리역도 발달 과정에서 일본인과 철도 관계자, 군수업자, 건설업자가 역 주변 관사에 머물면서 성매매업이 성황을 이룸.
- 이 일대는 1936년 제1차 구역확장 때 경성부에 편입된 신설동, 용두동, 안암동, 제기동, 청량리, 전농동, 답십리, 종암동, 돈암동, 성북동, 정릉동 지역은 도심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이 모여든 곳임. 신설동과 사당동 부근에 형성된 토막촌에는 온갖 잡업(雜業)에 종사하면서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 도시빈민은 도시화 과정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로 동대문구의 판자촌을 형성하게 됨.
- 청량리역에 왕래한 화물 중 발송 화물보다 도착 화물이 3배가 많았고, 자연스레 철도 인근에 물류와 관련된 노역꾼이 거주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음. 이처럼 유동인구와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소위 ‘도시’라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그래서 청량리역 인근에 경성농업학교, 경성제국대학 예과, 조선총독부 입업시험장을 비롯한 다양한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도시화가 더욱 촉진되었음.

- 청량리역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간난신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임.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의 (반)강제적 계토화와 인종적으로 부과된 배제의 사회적 과정이 진행된 상징적인 예 중의 하나가 동대문 밖의 토막촌임. 이후, 청량리역의 산업발달은 조선시대-일제강점기에 이미 증가한 거주민의 주거지를 충족하지 못했고, 청량리는 193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진 '도시계획'으로 철도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철도관사',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영주택인 '부흥주택', 서민들을 위해 세워진 '미주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부도심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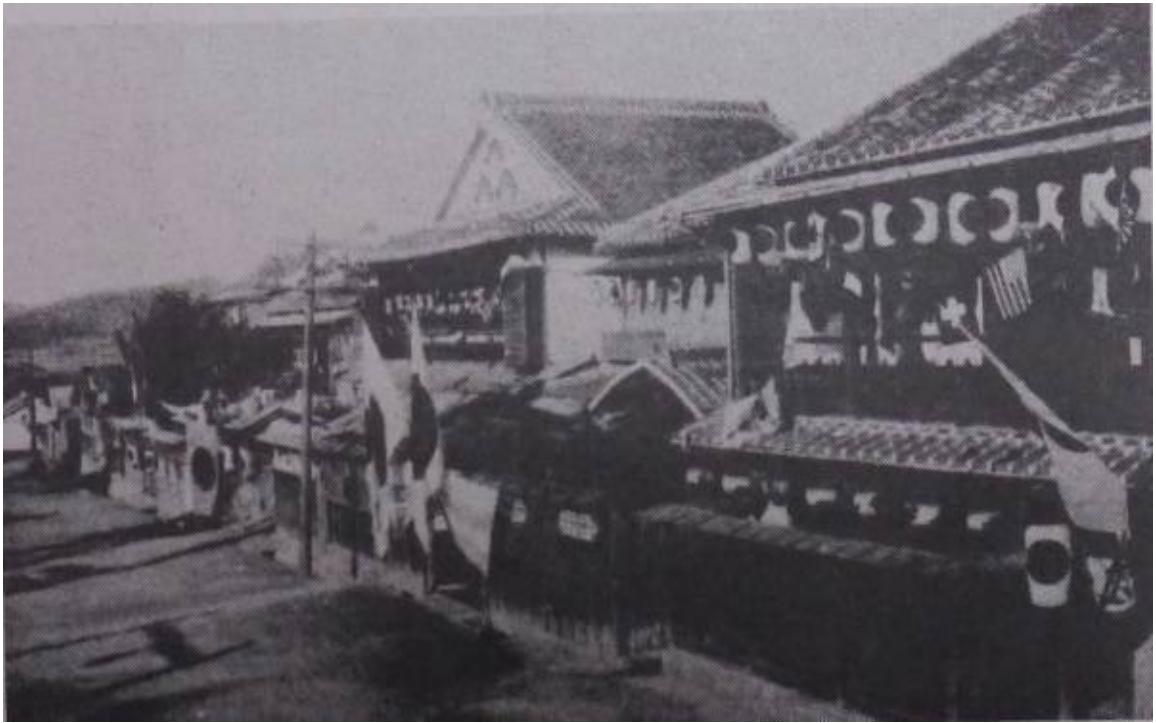
[그림 14] 1970년대 청량리 부흥주택(출처: 아시아경제)



■ 청량리역과 성매매 산업의 중심지화

- 한국전쟁 이후 청량리역은 파괴되었지만, 서울 수복 이후 빠르게 복구시켰고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청량리역에 오래 머무는 일이 잦아짐. 전근대 자동차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교통수단은 매우 적었고, 기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했음. 특히 기차역엔 여행객과 상인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많았음. 승객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기차역 주변엔 이용객이 묵을 수 있는 숙박업이 번성하게 되었음. 기차역을 이용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다 숙박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여 사창이 성업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주요 집창촌은 기차역 근방에 존재했고, 오랜 기간 음성적으로 존속됐음.
- 성매매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기초조사가 수행되었던 2002년 기준으로 전국에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69곳 중 절반 이상이 철도역 근방에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전차가 놓이고, 기차역이 존재했던 청량리는 사창의 무법지대가 되기 쉬웠음.
- 기차역이 집창촌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면, 전쟁은 집창촌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했음. 일제강점기 중일전쟁에 징집되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병사, 혹은 귀국한 병사가 전쟁의 스트레스를 유곽에서 풀기 위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따라서 본격적으로 태평양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전초가 된 1935~1938년 사이에 성매매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음.

[그림 15] 일제강점기 서울의 유곽촌(출처: 여성신문)



-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청량리 588’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청량리역이 일제강점기에 이미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주요 관문이었다는 특수성과 연관이 깊음. 강원도 전선이 치열했던 한국전쟁 당시 청량리역은 군인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강원도 철원, 금화, 양구 등의 동부전선으로 끊임없이 군인이 수송되었고, 격전지에서 살아남은 군인이 돌아올 곳도 청량리역이었음. 이로 인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덩달아 성매매 종사자를 늘리게 되어 집창촌의 형성을 가속했음. 군부대의 이전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인근 집창촌 인구의 수용으로 인해 청량리 588의 규모는 커지고 인근 상권이 성매매업소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집창촌’으로 탈바꿈되었음.

4.7. 동대문구의 음식문화

- 동대문구는 음식문화가 다양하고, 각 지역사의 한 단면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지역민들과의 꾸준히 상호작용을 해왔고 이로 인해 지역성에 기반한 스토리텔링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휘경동 파전, 용두동 주꾸미, 중식당 영화장’은 동대문구가 도시화하면서 어떻게 형성·전승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음. 도시 개발에 따른 동대문구의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주꾸미 ‘나정순할매주꾸미’

- 1969년 상경한 나정순, 세운상가 부근에서 포장마차와 식당 등을 운영하다 용두동의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고 백반집 ‘호남집’을 시작. 당시에 식당 주변에는 공장이 많았고 음식점은 하나도 없었다고 함. 주 손님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징어볶음과 제육볶음 등을 판매. 하루 500그릇까지 팔릴 정도로 장사가 잘됐고 신설동까지 배달도 했음. 그러다 우연히 어느 식당에서 주꾸미 볶음을 맛있게 먹은 것이 계기가 되어 중앙시장에서 주꾸미를 사다가 입맛에 맞게 양념을 만들어 주꾸미볶음을 팔기 시작. 1980년대 후반 주꾸미볶음 전문점으로 변경. 1990년대 이후 호

남집 주변에 주꾸미볶음을 파는 음식점들이 생겨나기 시작. 이후 동대문구에서는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행, 2009년 주꾸미 동상 건립. 현재 주꾸미 골목에는 나정순할매주꾸미 외에도 임오네, 고흥, 용두동주꾸미 등 다른 전문점이 있음.

■ 파전 ‘이모네왕파전’

- 1970년대 ‘나그네 파전’이 판잣집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1970-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곳으로 유명해짐(1980년대 회기역이 개통하며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이 몰림). 나그네 파전 개업 당시 그 일대는 작은 개천이 흐르는, 집 한 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함. 나그네 파전이 들어선 이후, ‘낙서파전’, ‘이모네파전’, ‘학사파전’, ‘온달파전’ 등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며 파전골목 형성. ‘이모네왕파전’ 대표는 2003년 당시 현재의 건물에 있던 동아리 파전을 인수하여 운영 시작. 방송출연을 계기로 세를 확장하고 파전골목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 중. 초창기부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이드메뉴와 세트메뉴 개발에 힘씀. 2016년 동대문구의 ‘회기역 주변 환경 개선 공사 사업’의 완료로 파전 골목 조형물이 설치됨.

[그림 16] 동대문구 회기동 이모네왕파전(출처: 서울사랑)



■ 이문동 영화장

- 중국 사천성 출신의 유지곤 창업주가 해방 직후 한국에 들어와 1948년 충남 부여에서 모친 정수지와 함께 중식당 복흥루 창업. 이후 유지곤은 서울로 상경하여 위영루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 1970년대 외대 교수회관 건너편에 위치한 국민반점 인수.(1976년 현재의 ‘영화장’으로 상호명 변경). 현 대표인 아들 유영승이 개발한 ‘굴짬뽕’이 대표 메뉴로 자리잡음. 2008년 현재 위치로 가 오픈, 3개월간 두 지점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현재 자리로 정착함.

4.8. 동대문구의 유무형 문화유산

■ 나전칠기

- 196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시설과 도구가 기계화됨에 따라, 작업 구조가 이원화됨.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과 명인이나 명장이 운영하는 대형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있음. 1960년대 후반 나전칠기의 수요가 증가했고, 1970-1980년대 초는 나전칠기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음. 나전칠기 상가들은 왕십리동과 화양동에 밀집, 동대문구 지역에서는 신설동과 청량리동, 답십리동 등에 나전칠기 상가들이 즐비. 공예품은 남대문 대도상가를 비롯해 새로운 백화점 일대와 동대문 광장시장 2층의 도소매상들이 전국의 상권을 쥐고 있었음.
- 공방이나 공장의 경우 동대문구에서는 임대료가 저렴했던 답십리와 장안동 일대가 주 분포지였음. 칠기 명장 권영진이 1970년대에 답십리에 있는 나전칠기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답십리를 기반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한국공예술가협회장 이철용은 1970년에 이문동에서 한미공예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함. 1980년대가 되면, 가구 소비성향이 변화함에 따라 나전칠기 판매량이 감소하고, 서울의 개발에 밀려 많은 공장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성남시 등으로 이전 1990년대를 전후로 화양동의 가게들이 왕십리로 이전하며 왕십리가 나전칠기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함.

■ 경기민요, 필봉농악

- 동대문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의 전승 교육사인 김금숙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경기민요가 있으며, 이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를 가리키는 말로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또 임실 필봉농악을 중심으로 가락을 연주하는 동대문구 농악단이 운영중인데, 필봉농악은 전국에서 널리 연주되는 농악 중 하나라도 개개인의 기교보다는 농악단의 협화와 단결을 중요시하며, 제의성, 연예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음.

■ 선농단, 선농제, 설령탕

- 조선시대에는 태조를 시작으로 역대 임금들이 이곳에서 중국 전설에 나오는 농사의 신 염제 신농과 후작을 모시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祭)를 올렸음. 이때 도성 밖 동교(東郊)인 동대문구 지역은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신농씨(神農氏)에게 제사지내는 선농단(先農壇)이 동대문에서 가까운 지역(제기동)에 설치되었으며 선농단제(先農壇祭)는 경술국치 3개월 전인 1910년 5월 5일까지 이어졌음.
- 설령탕은 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등을 넣고 끓인 것으로, 동대문구 주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말함. 설령탕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조선시대 초기에 왕이 선농단에서 친경(親耕)을 하고 나서 가마솥에 소로 국을 끓여 백성들을 먹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며, 설령탕은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음식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

4.9. 전국 유통의 중심, 동대문구의 시장

- 전국의 상품이 모이는 중심지로서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 동대문구는 전국 각지에서 매일 신선한 농·축·임산물이 반입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바로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일부러 찾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임. 한국전쟁 이후 서울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경기도 북부 일원과 강원도 일대의 농민들이 생산·채취해 오는 농산물과 채소 및 임산물들이 옛 성동역과 청량리역을 통하여 서울로 몰려들었음. 그 반입과 판매를 감당하고자 매립한 공지에서 장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됨.
- 동대문구에는 경동시장을 비롯해 서울약령시,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전국에 이름난 시장을 포함해 총 19개의 시장이 있음. 6·25 전쟁 이후 서울 사람들의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1960년 청량리역을 통해 농산물과 임산물이 집결돼 개설된 역사 깊은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경동시장은 현재 약 700여 개의 다양한 점포가 성업중이며, 대지 9,323㎡ 건물 면적 30,300㎡ 규모의 4층 3개 동의 종합상가로 인삼, 한약재, 더덕, 도라지, 건어물, 제수용품, 수산물 등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1960년대부터 제기동 일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경동시장은 주변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상품이 유통됨으로써, 손님이 꾸준히 늘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그림 17] 경동시장(출처: 동대문구의 오늘, 과거, 그리고 미래와 만나다)



- 그 밖에도 채소와 건어물, 인삼, 홍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동시장 광성상가, 곱창, 과일, 채소, 생선 등 식료품 일제 및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답십리 현대시장, 서울 동부권의 과일전문 도소매 시장인 청량리 청과물시장, 동서시장이 활발히 영업 중임. 전국 시장, 전농로터리시장은 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장이라면, 청량리 전통시장은 1948년 문을 연 서울시 종합시장 제1호로 서울의 동북부와 강원, 경북, 충청권 등이 이용하는 전국적인 시장으로 주위에 많이 위치한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전문시장이며, 족발, 고춧가루, 참기름, 채소, 젓갈 등 다양한 식재료를 취급하고 있음.

■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

- 조선시대 흥인문 밖 3리 지점, 선농단 서쪽에 보제원이 있었음. 흥인문을 지나 동묘(東廟)에 이르러 길이 둘로 갈라지고, 동북쪽으로 가면 보제원에 닿게 되는데, 보제원은 동대문 밖에 있었던 공용 여행자의 숙식 제공장소였음. 보제원에서는 숙식제공 외에도 한의원과 의좌(醫坐), 간사회 등을 배치하여 구료사업을 벌였고, 무의탁자를 수용하고 행려병자의 구료나 사망시 매장까지 해주는 구휼기관의 역할을 했음.
- 광복을 전후하여 보제원 자리에 한약재를 취급하는 약재상이 하나둘 모여들어, 오늘날은 제기동·용두동 일대 23만 5천㎡에 한의원 185개소, 한약국 257개소, 한약도매업체 144개소, 한약방 40개소, 한약수출업체 및 기타 약재상을 포함하여 한약관련 업체 총 1,044개소가 운집돼 국내 한약재 유통량의 70%를 공급하며 옛 보제원을 떠올리게 하고 있음. 아마도 한약재의 주산지인 강원도와 태백준령 등 경춘선과 중앙선의 시발역인 청량리역이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 여건도 있겠지만 보제원과 한약 상가 형성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18] 서울약령시(출처: 서울특별시)



- 청량리역과 인접한 연유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산출된 약재 가운데 상당수가 약령시장으로 집산이 되기 때문에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가 많은 곳으로 명성이 높음. 서울약령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종합시장이며, 1960년대 말부터 교통이 편리한 점을 이용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한약재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전문 한약시장으로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에 약 1천여 업소가 모여 있음.

5. 동대문구 도시역사의 결정적 이슈

5.1. 경계이자 통로로서의 동대문과 동대문구 지역의 형성

- 동대문구는 조선시대 한성부 도성 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농경지와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의 동부에서 가장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임. 조선 후기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용두동 일대에는 주막거리가 번창하였고 아울러 객주·거간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조선시대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던 선농단이 이곳에 위치해 있어 농업이 발달하였음.
- 특히 풍부한 하천의 물을 이용하여 미나리를 많이 심어 동교의 미나리밭으로 유명하였음. 해방 이후에도 청계천변과 중랑천변(지금의 답십리와 장안동 일대)에는 상경한 이농민들의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판자촌을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던 미나리 밭은 1958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된 청계천 복개공사와 청계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자취를 감추었음.
- 동대문구는 이렇게 서울의 경계로서 사대문을 경계로 발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국 각지와 서울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통해 성장해 온 지역임. 따라서 이 지역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동적 속성, 다양한 사람과 물산이 오고 감으로써 정체성을 만들어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5.2. 전근대를 밀어내고 근대 도시로 재탄생시킨 철도

- 조선시대 청량리 일대는 도성의 성저십리로, 동교라 불리었던 곳으로, 도성과 접한 지역이다 평평한 지형, 좋은 토성의 땅이어서 국가제례처를 운영하는 곳으로 이용되었음. 더불어 동구릉 가는 왕의 능행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예로부터 단순히 도성의 교외지역이 아닌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음. 1897년에는 명성황후의 홍릉이 지금의 홍릉수목원 일대에 마련되고 순종의 잣은 능행이 이루어지면서 홍릉은 청량리 일대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장소로 각인됨.
- 왕실에서 소유하고 관리했던 청량리 일대 주요 공간은 조선과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훼손되거나 이전하게 되고, 이 일대 장소성에도 변화가 시작됨. 선농제는 폐지되었고, 선농단 자리에는 원잠종제조소 및 경성여자사범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원형은 훼손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됨.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전근대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국가 위상의 소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비록 전근대기의 고유한 상징성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지만, 서울의 경계가 확장되고 교통이 발달하는 등의 변화에 힘입어 청량리 일대는 서울 변두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장소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하였음. 동대문구의 경우 최초의 전차 노선이 놓인 공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의 ‘철도문화’를 지닌 지역임. 동대문구에 설치된 청량리역은 대한제국 때 세워진 최초의 노선 중 하나라는 대표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 동안 한국인의 교통·운송을 담당해왔음. 이 철도를 통해 동대문구는 서울의 근대도시 면모를 뒷받침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

5.3. 철도문화로 인한 도시 정체성의 변화: 도시 경계의 확장

- 초기 동대문구의 철도문화는 근대화와 유흥의 기억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우

리에게 전차가 흔하고, 평범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는 반면, 당시 사람에게 ‘전차’는 굉장한 흥밋거리이자, 한창 이루어지는 ‘근대화’를 느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임. 특히 서대문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긴 길을 운행하며, 각 성문을 지나는 전차의 노선은 당시 사람에게 큰 반향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임.

- 이후 전차를 점차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기차까지 들어서면서 동대문구의 철도문화는 사람에게 ‘교외’와 ‘변두리’로 떠나는 여행이란 개념을 일깨웠음.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로 이어지는 경로는 서울 도심지에서 벗어난 변두리 ‘청량리’로 사람의 생활공간이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임. 따라서 도시인들에게 청량리는 여가와 휴식을 위해 잠시 방문하는 장소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이는 근대적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게 됨.

[그림 19] 1910년대 청량리 가로수길 모습(출처: 아시아경제)



- 전차가 서울의 경계에서 서울의 중심부로, 또 중심부에서 다른 경계로 이동이 가능했고, 누구나 전차에 탑승해 먼 거리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 중심지에 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사라지게 됨. 기존에는 거리상 불편함으로 이주하지 않았던, 도시 경계까지 주거지를 구하고 얼마든지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임. 더욱이 재조일본인이 주거구역을 늘려가면서 중심인구가 포화하였던 서울의 중심부를 벗어나, 조선인들은 서울의 경계 동대문구로 이주하게 됨. 이와 같은 집단 이주의 배경에는 전차의 발달이 무관하지 않음.
- 그리하여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변두리’인 것과 동시에 ‘서울’과 ‘경계인’의 만남의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됨. 청량리로의 여행은 단순히 지역이동이 아니라, 갑갑한 도시를 벗어난 ‘교외’이자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산보’의 공간으로 확장되었음. 청량리가 휴식과 여행의 공간으로 여겨지면서, 이는 서울 외부에 사는 사람에게겐 서울여행의 관문으로 여겨지게 됨. 실제로 1936년 이후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역은 물류의 중심지로서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되었고, 이름 또한 ‘동경성역’으로 개칭되면서 당시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5.4. 청계천역을 관통하는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 판자촌, 집창촌

- 청계천 판자촌은 한국전쟁 직후, 즉 1950년대 초에 피란민과 월남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작됐음.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인 청계천 판자촌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음. 이로 인해 1958년 광교를 중심으로 폭 16~54m의 복개공사가 시작되면서 청계천 판자촌을 밀어내기 시작했으며, 청계천 복개 공사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1969년에는 광교 쪽에 살던 판자촌 주민들도 마장동 쪽으로 이주해야만 했음.
- 1960년대의 청계천 판자촌 거주자들은 대체로 농촌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서울로 이주한 농민들로, 배운 것도, 기술도 없던 농촌이주민들이 서울에서 영터리 지붕이라도 이고 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그러나 1977년 답십리까지 청계천 복개공사가 완료되면서 판자촌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됨. 이 기간에 상류에 거주하던 판자촌 주민들은 하류 일대로 이주해오기 시작했고, 답십리, 송정동 일대의 판자촌은 판자, 비닐, 거적으로 지은 1~2평 남짓한 공간으로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기아와 질병을 면할 수 없었음. 이러한 환경에 충격을 받은 청년들이 빈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됨.
- 이렇게 청계천 독방에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과 도시정비에 떠밀려 봉천동, 상계동, 성남 등으로 이주하게 됨. 청계천 복개가 완료된 1977년 소설가 윤홍길이 발표한 연작소설 '아홉 켄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이 청계천 판자촌의 주민들 중 광주대단지(성남)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음. '불순분자에 의한 광주대단지 폭동'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그들은 강제 이주당한 곳의 생활기반과 교통대책을 요구했던 것임. 즉 1950년대 말부터 진행된 청계천 복개와 도시정비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였음.

[그림 20] 일본 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가 찍은 1965년 청계천 모습(출처: 오마이뉴스)



- 청계천 독방에 살던 가족이나 그들의 이웃들은 삶의 터전이 사라진 것이고, 그곳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일순간에 사라지게 됨. 관점에 따라 1960~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의 삶을 비루하고 절망적인 가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농촌에서 이주해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간 이들에게 청계천 판자촌은 희망이자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음. 이러한 판자촌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 것인가는 동대문구의 역사를 정리하고,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동대문구 집창촌 역시 현재는 해당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과 건물 모두 사라진 상태지만, 성매매라는 특수한 사업이 갖는 고유의 영업방식, 그들의 삶, 그리고 공간구성이 생활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음. 집창촌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집창촌의 유한은 기록화된 자료를 통해 보전되고 있으며, 도시발달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동대문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음.
- 청량리 집창촌 철거 과정에서 잠시 이 지역 일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변경하여 집창촌 형성 배경 등을 기록하기로 계획하기도 했으나, 청량리 4구역 입주 예정자와 인근 주민들은 ‘집창촌 흔적 남기기 사업’이라며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함. 이후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청량리 집창촌 보전 계획이 폐지됐음. 불편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대문구의 장소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찰이 필요함.

[그림 21] 청량리 588(출처: 경향신문)



5.5. 잠재적인 대학문화의 역동성

- 서울의 서쪽에 신촌이 대학가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동쪽에는 고려대, 외대, 경희대 등이 밀집해 있는 동대문구, 성북구 지역이 또 다른 대학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신촌에 비해 대학가, 대학문화의 이미지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촌 일대 보다 훨씬 많은 대학과 대학생들이 존재하여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동대문구의 문화적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왜 그동안 이 지역의 대학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5.6. 재개발과 민자역사시대의 현재진행형

■ 23년만에 완공된 청량리민자역사

- 청량리 민자역사는 계획에서 완공까지 23년이 소요되어 통상적인 건립기간인 10년 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됨. 87년 사업자 선정 후 도시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며 97년 3월에 최종 설계가 확정됐고, 그해 9월 역사 공사 중 이용할 2층짜리 임시역사를 착공했지만, 곧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됨으로써 임시역사만 마무리 짓고 본공사는 2년간 중단됨.
- 2000년 초 IMF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후 본 공사가 재개되지만, 서울역 민자역사 공사가 시작되고 KTX 고속철 개통으로 서울역 공사가 더 시급해지자 청량리민자역사는 사업순위에서 밀리게 되었고, 자금과 인력이 모두 서울역 공사에 우선 투입됨. 이에 따라 청량리민자역사 공사는 다시 보류됐고 애초 2000억 원으로 추정한 사업비도 39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됨.
- 서울역 공사가 마무리된 2004년 5월 청량리민자역사 공사가 재개됐지만 임시역사에서 운행 중인 철도 운행시간을 피해 공사를 해야 했고, 경춘선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더 진행이 더디게 됨. 또한 민자역사 상업시설 입주자 모집도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롯데에 통째로 임대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게 됨.

[표 3]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연혁(출처: 매일경제)

시기	주요 사건
- 1987년 6월	민간사업시행자(한화)선정
1997년 3월	최종 설계(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9월	2층짜리 임시역사 착공
12월	IMF 경제 위기로 사업 보류 청량리 임시역사만 공사 진행
1998년 7월	임시역사 완공 IMF 여파 본공사 공사 보류
2000년 5월	서울역 공사 시작으로 공사 재보류
2004년 1월	입점업체(롯데쇼핑) 협약 체결
9월	본공사 마침내 기공식
2010년 6월	임시역사 철거
8월	청량리민자역사 준공, 오픈

■ 동대문구의 역동성의 상징, 청량리민자역사

- 청량리민자역사는 계획에서 완공까지 23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뚫고 문을 열었으나, 한반도 동부권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축으로 이미 조선시대부터 동대문구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과 상품이 오고 가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거기에 더불어 건립된 백화점, 영화관 등 상업, 문화시설과 일대에 설치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등이 청량리 일대를 서울동북부지역

의 최대 상권이자 주거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 동대문구의 지역적 역동성은 청량리 민자역사를 통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22] 청량리 민자역사 조감도(출처: 연합뉴스)



6. 결론

■ 동대문과 청량리역이 만든 현재진행형의 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대문의 존재로 인해 형성된 도시이며, 그 동대문의 주요 기능, 즉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통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점에 의해 규정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성격은 청량리에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전차가 연결되면서 더욱 강해졌으며, 청량리역은 100여 년 동안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음.
- 전근대의 역사적 유산이 과거형으로 남아 현재의 변화에 연관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동대문과 청량리역의 존재는 현재의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동대문 일대의 산업 기반과 전국 교통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청량리역의 존재는 동대문구의 현재성에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존재로 인해 동대문구는 현재진행형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 오고 감의 도시와 동대문구의 역동성

- 동대문구는 사람과 물산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이며, 이는 이미 수백년 동안 유지되어 왔음. 청량리역의 존재로 인해 더욱 강화된 이러한 역동성은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 사이의 거래가 시장을 만들고, 이들이 쉬고 머물기 위한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의 형성으로 이어짐. 이 과정에서 동대문이 겪었던 급속한 성장과 팽창만큼이나 어둡고 불편한 역사 역시 존재함.
- 그런데도 이러한 역사가 동대문구의 역동성을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며, 역사가 지니는 양면성을 모두 동대문구의 유무형의 자산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동대문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일이 될 것임. 동대문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역동성을 지닌 도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업 도시로서의 면모 또한 동대문구의 잠재력이기도 함. 특히 전국적으로 손꼽힐만한 대학가와 청년인구의 존재는 동대문구가 더욱 현재진행형의 성장이 가능한 도시임을 보여주는 근거임.

■ 역동성을 넘어서는 정체성 찾기

- 동대문구의 역동성은 한편으로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지역에 남았는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함. 장소성은 공간에 역사, 의미, 가치, 경험, 기억 등의 개념을 더한 것이며,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은 그 장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함. 따라서 이를 성찰하고 사유함으로써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동대문구는 머물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의 존재보다는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 규정되어 온 도시임. 이는 지속적으로 동대문구에 이주해 왔다가 다시 떠났던 많은 이주민의 존재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 이렇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7.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도시의 장소성 읽기를 위한 제언

■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 탐구

- 인간이 특정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공간은 그와 관련된 상징성을 체화하기 마련임.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와 경험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축적된 시간이 그 장소의 고유한 특성과 기억을 만들게 됨. 따라서 도시의 장소성을 읽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과정이 필요함.
-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물질적 자원이나 현재의 사람과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역사적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간의 활동, 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동대문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이 도시의 장소성을 읽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대문구의 마음을 파악해 감으로써, 동대문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쌓을 수 있음. 동대문구의 도시 현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이렇게 장소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중장기적인 동대문구의 문화적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확장성있는 도시 진단

- 도시는 대부분 그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 온 핵심적인 지역과 그에 비해 도시 내에서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 기타 지역의 구분이 존재하기 마련임. 동대문구의 경우도 동대문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주요한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요한 사건들이 이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내부의 역동성은 전 지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량리역을 비롯한 몇몇 장소만이 아닌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도시 진단이 필요함.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의 전개가 가능할 것임.

■ 자원조사 등 객관적 데이터 분석과의 연계

- 도시의 장소성은 그 역사와 경험, 그리고 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존재가 없다면 증명하기 어려운 것임. 따라서 지역 분석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의 구축과 지속적인 분석, 추적 조사 등을 통해 도시 정체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후 계획 수립의 토대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의 과거를 읽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를 진단하기 위한 기법으로 시행되는 유무형의 자원조사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행동 양태, 취향, 욕구 등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다각적인 분석과 이해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확인하고, 이를 문화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참고문헌

- (재)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소, 2013, 『동대문 지역문화 인포그래픽 개발 연구』.
동대문구 구정연구단, 2021, 『지역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 동대문구 디자인 방안』, 동대문구청.
_____, 2021,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실태 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2010, 『동대문구의 오늘, 과거 그리고 미래와 만나다』, 동대문구청.
류호철, 2008, 「사회적 공간으로서 청계천의 의미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2, 『청량리, 일탈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안중범, 2018, 「1960~70년대 청계천 주민의 삶과 사회경제 변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태, 2009, 「청량리 또는 ‘교외’와 ‘변두리’의 심상 공간-한국 근대문학이 재현한 동대문 밖과 청량리 근처」, 『서울학연구XXXVI』.
최인영, 2009, 「동대문 밖 전차의 도입과 역할 - 청량리선과 왕십리선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XXXVII』.

웹사이트

경향신문	http://khan.co.kr
매일경제	https://www.mk.co.kr
매일일보	http://www.m-i.kr
서울사랑	https://love.seoul.go.kr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철도박물관	https://www.railroadmuseum.co.kr/
한국철도공사	https://info.korail.com

